

결혼 10쌍 중 1쌍 '다문화 부부'...광주·전남 지속 증가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다문화 혼인 비중 전년대비 1.5P ↑
베트남 아내 최다...중국·태국 순
광주, 다문화 이혼 증가율 전국 최고

지난해 혼인한 커플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는 다문화 혼인과 다문화 이혼 증가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전남은 다문화 출생비중이 타 지역 대비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전년(1만7428건) 대비 3003건(17.2%)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10.6%로 전년 대비 1.5%포인트(p) 늘었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지난 2019년 10.3%로 처음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시기 전체 혼인

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지난 2021년 7.2%까지 하락한 이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문화 혼인 유형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69.8%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남편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혼인 시기가 늦은 국내 남성의 국제결혼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문화 부부는 남편이 연상인 경우가 76.1%에 달했다. 국적 별로 보면 여성은 베트남 국적이 27.9%로 가장 많았고, 중국(17.4%), 태국(9.9%) 순이었다. 남성은 중국(6.9%), 미국(6.9%), 베트남(3.9%)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8158건으로 전년대비 3.9%(305건) 증가했다. 다문화 이혼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문화 출생아는 1만2150명으로 전년(1만2526명)보다 376명(-3.0%)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전년대비 0.3%p 증가했다.

광주·전남 다문화 혼인 건수 및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다문화 혼인 건수는 475건으로 전년

355건 대비 120건(33.8%) 증가했다. 다문화 혼인 증가율이 울산(43.2%)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17.2%)의 2배에 달한다.

광주는 다문화 이혼 증가율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광주 다문화 이혼 건수는 206건으로 전년(144건)에 견줘 43.1% 증가했다. 전국(3.9%) 증가폭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남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지난해 기준 782건으로 전년(654건)보다 19.6% 증가했고, 이혼 건수는 301건에서 306건으로 1.7% 늘었다.

전남은 점점 다문화 출생 건수가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다. 전남 다문화 출생은 641건(2021년)→538건(2022년)→492건(2023년)으로 감소 추세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전체 출생아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21년 7.6%에서 지난해 6.3%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다문화 출생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영 기자 zzang@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전통주와 식도락 여행 만끽

전남도, 11월 추천 관광지에 여수·순천·나주·고흥 선정

전남도가 깊어가는 가을 전통주와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여수, 순천, 나주, 고흥을 11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여수의 낭도는 화산 지형으로 철분 성분이 많은 자연환경 덕분에 부드러운 맛의 막걸리 생산지다.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낭도 막걸리는 100년 역사의 깊은 막걸리 맛을 느낄 수 있다. 함께 곁들여 먹기 좋은 서대회는 막걸리로 만든 천연식초로 무쳐 비린내가 적고 담백하며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잔칫날 반드시 장만하는 음식으로 여수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별미다. 낭도 막걸리는 고유의 품미 덕분에 해산물 요리와 함께 즐기기에 좋다. 여수의 신선한 해산물과 낭도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가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의 순천양조장은 이국적 분위기의 맥주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순천에서 자란 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와 순천에서 직접 재배한 매향으로 만든 탄산음료 매향사이다를 수제 햄버거와 함께 맛볼 수 있다. 또 흑두루미, 순천만, 외운, 낙안음성 등 '생태수도'라 불리는 순천의 이야기를 담아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다양한 생맥주를 맛보고 포장을 갈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과일로 만든 6종의 맥주는 여성 고객에게 인기 많다. 좋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코르크 마개

로 포장된 선물용 수제맥주를 구매할 수 있다. 나주의 다도참주가 주조장은 1960년대부터 전통을 이어온 막걸리 양조장이다. 생막걸리, 솔막걸리, 과일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다. 이중 한라봉을 듬뿍 갈아 넣은 '다봉' 막걸리는 2023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조장에서 막걸리 제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나주 전통주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나주 영산포 흥어 거리에서 흥어와 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가을 식도락 여행도 즐길 수 있다.

고흥의 유자술은 고흥 지역에서 재배한 유자를 사용해 만든 청주, 약주, 탁주, 동동주 등의 전통주다. 고흥은 우리나라 유자의 대표적 생산지다. 고흥 유자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향이 풍부하다. 유자술은 상큼함과 단맛이 좋고 도수가 낮아 식전주로 마시기에 좋다.

고흥 녹동항에는 장어요리와 활어회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많다. 고흥바다에서 잡힌 활어회와 유자막걸리를 곁들이면 여행의 만족감을 한껏 높일 수 있다. 또한 카페에서 유자아인슈페너, 유자 스무디, 유자 스콘 등 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트럼프 재집권...美 전문가 "한미관계 예측불가능 방위비 마찰 우려"

동맹 협의 없이 김정은과 협상
한국 안보 약화할 수도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한국과 조율 없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앤드루 어 브루킨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원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하에서 한미관계라는 길은 여러 이유로 더 평탄하지 않고 예측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비용을 더 청구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게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독재자에 친밀감을 느낀다"면서 "특히 김정은이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나 위협 완화와 관련해 합의를 타결하려고 트럼프를 접촉하기로 결정할 경우 트럼프는 동맹과 협의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같은 동맹의 국내 안보를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관련 내각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자체는 유지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면서 "특히 그는 기후 관련 정책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청정에너지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지난 2019년 대통령 재임시절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엄청나게 자랑해왔다. 하지만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에게 몹시 화가 났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어떤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는 데 동의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의 참모들은 그가 그런 입장을 철회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안보나 무역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준비해왔다. 한 가지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독재자들과 직접 협상할 경우 동맹을 버린다는 인식을 초래하고 의도치 않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의회 지도부와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 촉구

쌀 20만 추가 시장 격리·농협 비 매입자금 무이자 지원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정부의 잇따른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쌀 20만 추가 시장 격리 등 농가 소득 보장과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1년 동안 비 재배농가의 보상은 10~12월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높아야 보장되지만, 이런 추세라면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해 소득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정부, 농협, 각 정당에 건의했다.

지난해 정부가 2023년산 수급 예측 시 9만 5000t이 초과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4차례에 걸쳐 20만t을 시장격리 했음에도, 9월 말 재고물량 15만t이 발생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30만 이상 격리를 해야 쌀값이 반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올해 10월 정부의 쌀 수급예측은 12만8000t이 초과 생산이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20만t을 시장격리 했으나 쌀 소비량 감소, 통계를

류 등을 비축할 때 추가로 20만 이상 시장격리를 해야만 쌀값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비 매입자금(1조3000억원) 이자율 2%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협은 전년도 가격 수준으로 비를 매입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전남지역 농협에는 정부 비 매입자금이 평균 2000억원이 내려오고 있으며 무이자로 지원되면 40억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발생해 부담이 낮아진 농협에서 지난해 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전남농협 RPC의 경우 9월 말 2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12월까지 50억원 정도의 적자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산 쌀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협 RPC에 남은 2023년산 구곡물량 6만 5천 톤에 대해서는 주정용, 가공용으로만 방출되도록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